



# “가장 적절한 베스트 11 찾겠다”

## 서귀포 전지훈련 베어백 감독 밝혀

### “조직력 극대화로 아시안 컵 우승”

팀 베어백 축구대표팀 감독이 서귀포 전지훈련의 목표를 ‘조직력 확보’와 ‘베스트 11의 조기확정’에 뒀다.

베어백 감독은 23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강창학구장에서 첫 훈련을 마친 뒤 “23명의 선수들 중에서 팀의 균형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베스트 11을 찾는 게 이번 소집훈련의 목표”라고 말했다.

2007 아시안컵축구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29일 이라크와 평가전을 통해 확실한 주전선수를 확정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나선 것.

베어백 감독은 “첫 훈련에 대해 만족한다. 좋은 결정을 내려준 축구협회와 프로연맹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프로연맹과의 갈등을 일단락 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대표팀을 소집한 베어백 감독은 자신의 거취까지 언급하며 자신감을 보였던 아시안컵에 대한 대비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어백 감독은 이라크와 평가전을 통해 베스트 11을 확정해 조직력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유럽파들이 모두 빠지고, 팀 플레이를 조율할 수 있는 김남일 마저 빠진 현재 대표팀으로서 이번 제주 전지훈련을 조직력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격수와 수비수들이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 틀리 바뀌 처리를 맞물려 돌아가는 팀워크에 의한 전술적인 축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베어백 감독은 이라크와 평가전에 대해 “조직력을 극대화 하고, 현재 모인 선수들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베스트 11을 찾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훈련 첫 날 가벼운 부상을 입은 이천수(울산)와 김정우(나고야), 네덜란드와 평가전에서 역시 부상을 입은 조재진은 이날 훈련에서 제외됐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더 이상 부상자가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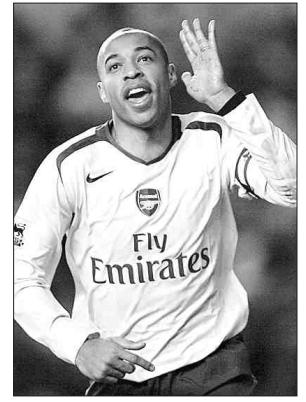
이동국에 대해서 베어백 감독은 “이동국은 그동안 광주 상무에서 훈련을 하면서 몸을 만들어 왔다. 오늘 정상훈련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몸 상태의 파악을 위해 압신 고트비 코치와 따로 훈련을 시켰다.”며 “다소 강도가 높은 훈련을 받은 만큼 내일 오전에 다시 점검해보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성·설기현·이영표와 김남일 등 팀 주축 선수들이 아시안 컵을 치러야 하는 베어백 감독이 2주동안 어떠한 지휘력을 발휘 할 수 있을지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라크와의 평가전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이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창학구장에서 이틀째 훈련을 가진 가운데 이동국(왼쪽)이 연습경기 도중 드리블을 하고 있다.

## 아스널 앙리 바르셀로나로



프랑스 축구 간판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30·아스널)의 스페인 프리메리가 FC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확정됐다.

아스널은 24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르셀로나와 앙리 이적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메디컬 테스트와 공식 계약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계약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앙리의 이적료는 2천400만유로(약 300억원)로 알려졌다. 바르셀로나는 호나우지뉴(브라질), 사뮈엘 에토오(카메룬),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등에 앙리까지 영입하며 막강 공격진을 갖추게 됐다.

앙리는 AS모나코(프랑스)와 유벤투스(이탈리아)를 거쳐 1999년부터 아스널로 등지를 옮긴 앙리는 8년 간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생활을 접게 됐다.

## K-1 세미 실트, 마이티 모 꺾어

K-1 최강자 세미 실트(33·네덜란드)가 ‘한국인 파이터 킬러’ 마이티 모(34·미국)를 꺾고 챔피언 벨트를 지켜냈다.

실트는 24일(이하 한국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2007’ 슈퍼헤비급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모를 상대로 심판 전원일치 판정을 거뒀다. 지난 3월 레이 세코(36·뉴질랜드)를 이기고 슈퍼헤비급 초대 챔피언에 오른 실트는 이로써 3개월 만에 치른 방어전에서 세계 격투기 최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반면 모는 올해 첫 경기인 최후반(27)과 맞대결에서 2회 KO로 이긴 것을 포함, 최근 6연승을 달리다 첫 패배를 안았다.

## 조선대, 대학검도 남자부 우승

조선대가 제6회 회장기 전국대학검도선수권대회에서 3년 만에 남자부 정상에 올랐다.

조선대는 24일 경북 청송고 체육관에서 펼쳐진 대회 남자부 단체전 결승에서 용인대를 3-1로 물리쳤다. 2003년 2회 대회와 이듬해 3회 대회에서 우승했던 조선대는 이로써 3년 만에 정상에 다시 복귀했다.

남자부 개인전 결승에서는 최규규(조선대)가 정찬영(목포대)에 머리치기 하나를 성공시키며 1-0으로 승리해 대학 ‘최고 검객’ 타이틀을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5일(월) ▲메이저리그(디트로이트-애틀랜타)(08 : 55·X-sports) ▲제8회 대학축구연맹전 8강전(13 : 00·KBSN Sports)

## 이동국 “훈련중 왼발 삐 조심해요”

### “아직도 부상 두려움 느껴” 고트비 코치 훈련 전담지도

왼쪽 무릎 통증을 이겨내고 2007 아시안컵축구 본선에 맞춰 몸을 만들고 있는 ‘다이아몬드’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부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동국은 24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강창학구장에서 대표팀 오전 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훈련 중에 왼발 삐를 조심하고 있다”며 “당분간 계속 신경을 쓰면서 훈련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국은 지난해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K-리그 경기에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해 독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월드컵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순간을 겪었고, 분데스리가 시즌 후반기에 무릎에 타박상을 입는 불운까지 겪었다.

이 때문에 이동국은 2일 네덜란드전을 앞두고

오랜만에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왼쪽 무릎 통증이 계속되면서 경기에서 빠졌고, 올림픽 대표팀 훈련에 합류해 몸을 만들려던 계획도 포기하고 말았다.

23일 시작된 서귀포 소집훈련을 앞두고 광주 상무 선수단에서 러닝과 패스 위주로 훈련을 소화한 뒤 대표팀에 합류한 이동국은 첫날부터 압신 고트비 코치와 함께 강도 높은 몸만들기에 열중했다.

훈련 이틀째를 맞은 이동국은 오전 훈련에서 실시된 미니게임을 모두 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부상 재발에 대해 걱정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지 못했다. 이동국은 “생각하면서 펼치는 플레이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무의식적이거나 거친 상황에서는 아직도 조심스럽다”며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다.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코칭스태프 역시 아시안컵 개막까지 아직 2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동국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바심을 내지 않기로 했다.

## U-20 청소년 축구 체코 제압

### 평가전서 심영성 결승골 1-0 승리

‘리틀 태극전사’들이 다음달 1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2007 대회를 앞두고 동유럽 강호 체코를 제압, ‘멕시코 4강 신화 재현’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

월드컵을 앞두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지막 탐험길 중인 한국 U-20 청소년대표팀은 24일 오전 노스욕 에스터 사이너 경기장에서 열린 체코와 평가전에서 후반 30분 심영성(제주)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미국, 브라질, 폴란드와 ‘죽음의 D’조에 든 한국은 강팀 체코를 맞아 경기 결과는 물론 내용 면에서도 우위를 점해 월드컵 본선 전망을 밝게 했다.

이번 대회까지 다섯 번째 월드컵 본선에 올라 북한, 아르헨티나, 파나마와 E조에 속한 체코는 한국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폴란드와 지난해 19세 이하 유

럽선수권대회에서 맞붙어 2-0으로 승리한 바 있다. 한국이 아가자기한 패시 플레이가 바탕이 된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평가전인 만큼 한국은 후반 들어 9명을 교체하며 선수들에게 고른 출전 기회를 줬다.

공격수 신영록(수원)과 심영성을 비롯한 미드필더 이청용, 김동석(이상 서울), 이상호(울산), 주장 박주호(송실대)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투입됐다. 한국은 후반 3분 김동석의 중거리 슈팅을 시작으로 다시 공세를 이어나가다 결국 후반 30분 승부를 결정지었다. 신영록이 상대 페널티지역 오른쪽을 파고들어 골키퍼를 피해 중앙으로 찰려온 볼을 심영성이 페널티킥 지점에서 오른발로 차 넣어 골문을 갈랐다.

한편 한국과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맞붙은 미국이 칠레와 마지막 공식 평가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미국은 24일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자이언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칠레와 친선경기에서 1골1도움을 올린 ‘축구신동’ 프레디 아두(18·레알 솔트레이크)의 맹활약을 앞세워 2-1로 이겼다.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공간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찜질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갈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 (062)262-0101

**로템갤러리** 직수입 안텍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찾아오시는 길

1기동평면

1-백운동

상상디자인프라자 현대자동차 미래이동병원

RODEM

직수입 안텍 전문매장·침대·의탁·소파·식탁·의자

직영점 T.653-4022

특별기획상품행사

●진열상품 30%~최고50% (일부품목제외)

대표전화: (062) 653-4022

물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공간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찜질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갈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 (062)262-0101